광주·전남 학교, '4월 개학' 준비 본격화

시교육청, 일선 학교에 운영매뉴얼 배포…방역 철저 도교육청, 준비지원단 구성…학습지원・생활지도 추진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4월6일 개학 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26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은 이날 광주 일선 학교에 '코로나19 대 응 학교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 얼은 '교무학사 대응 매뉴얼', '감염병 대응 매뉴얼', '급식 대응 매뉴얼' 등 총 3개 영역을 종합하고 있다. 단위학교는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학 전, 개학 당 일, 개학 후 시기별로 교무학사, 보건, 급식 분야를 준비하고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개학 때까지 비축용 보건 마스크 62만장, 보급용 일반마스크 26만 장, 면마스크 41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 되지 않으며,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 가 발생할 때 사용하고, 면마스크는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들이 착용한다.

학교에서는 급식실 이외 장소는 정수 기 사용을 금지한다.

특히 학생이 등교할 때와 급식 전에는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하게 되며, 통학버 스 탑승 전에도 차량 이용자 모두 발열 체크를 하도록 안내했다.

31일부터 4월2일까지 시교육청 주관 으로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특별 방역 을 실시할 예정이다. 열화상 카메라는 학생 수 600명 이상의 학교에는 1대, 1천 500명 이상의 학교에는 2대를 지원한다. 학교 급식은 시차 배식과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바탕으로 충분한 급식 시 간을 확보하고, 학생간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좌석 조정 등을 통해 학생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도교육청도 '신학기 개학 준비 지원 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 단은 ▲학습지원 ▲방역·돌봄 ▲학생생

활·학원지원 ▲예산·시설 지원 등 4개

반 7개팀으로 꾸려졌다. 도교육청은 개학 직전인 4월3일까지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해 도내 전체 학교 (952개)에 대해 추가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개학 직전까지 방역용 마스크 4 1만3천136매, 면마스크 144만5천976매, 손소독제 4만4천104개, 체온계 1만1천5 20개, 열화상 카메라 373대 등 방역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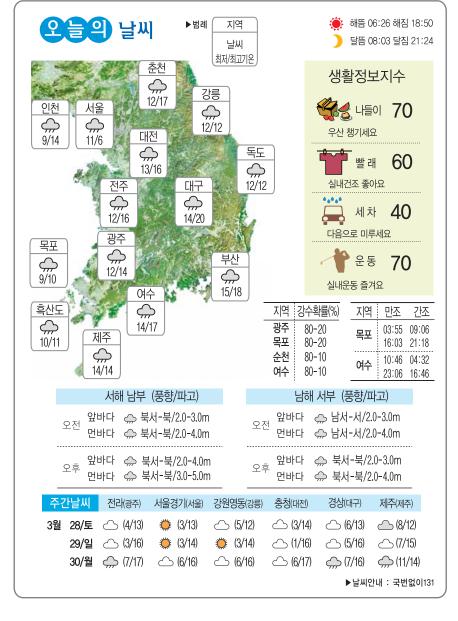
을 확보할 계획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

비해 952개 전 학교에 일시적 관찰실도 마련했다.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 화기 위해 정규수업에 준하는 관리형 원 격수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초·중학 교의 경우 e학습터, 고등학교는 EBS 온 라인클래스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전체 의 3%(5천686명)에 달하는 원격교육 소 외 학생에 대해 통신비 4억원을 지원한 다는 방침이다.

또 개학 이후 상황 발생시 비상 연락 및 보고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방과 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안전수칙 준 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코 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한 장기간의 불안 감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화를 이루도 록 상담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권범기자



광주 공립고 조리원 채용권 전환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4월1일자로 공 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 145명을 교육감으로 채용권을 전환한다.

그 동안 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조 리원의 경우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었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및 제9대(직선3 대)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감으로 채용권을 전환하게 됐다.

채용권 전환을 통해 공립고등학교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조리원을 채용·관리 하게 된다.

고용안정, 인사노무관리 통일, 효율적 인 인력관리,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교 육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김선욱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공립고등학교 조리원 145명의 교육감 채용권 전환으로 고용 근로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사기 진작,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 고양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유채·개나리·벚꽃 사이로··· 광주와 전남지역에 봄비가 내린 26일 오전 서구 동천동 광주천변에 활짝핀 유채와 개나리, 벚꽃 사이로 시민 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영근기자

동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광주 동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 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해 공공시설·주택·상업 건물에 태 양광·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 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민간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 성, 지방자치단체를 주관기관으로 산업 통상자원부에 신청해야 한다.

동구는 산수1·2동을 사업대상지역으

로 선정해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 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총 30억여원의 사 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컸 던 에너지 소외지역 주민들의 전기료 난방비를 절감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며, 자세 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www.dong gu.kr)를 참고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을 통해 관내 모든 지역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에너지 수혜를 누릴 수 있 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승지기자

도교육청, 에듀테크 교육서비스 시스템 구축

구글 '클래스룸'·MS '팀즈' 활용 온라인 학습 가능

전남도교육청은 구글 '클래스룸'과 화함에 따라 초래되는 교육 현장의 학습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보다 쉽게 활 용해 학습할 수 있는 '전남 에듀테크 교 육서비스'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이 장기 가능한 원격교육 에듀테크 플랫폼이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구축된 구글 클래스룸과 MS 팀 즈는 온라인상에서 학생과 실시간 소통 하면서 토론과 과제제시, 화상수업까지

도교육청은 최첨단 IT기술력을 보유 한 글로벌 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 룸과 MS 팀즈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3-4주 걸 리던 사전 과정(신청·승인)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 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한 교원들에게 '구글 클 래스룸' 및 'MS 팀즈' 활용 실시간 화상 연수와 유튜브 영상을 제공해 에듀테크 교육서비스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에 온라인 기기가 없거 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의 실태를 지금까지 단위학교에서 구글 및 MS 파악해 각 급 학교와 함께 온라인 기기 를 대여하거나 인터넷 사용 환경을 지원 할 예정이다. /최권범기자

조선대, '코로나19로 변화된 나의 삶' 공모전

조선대학교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단은 오는 4월12일까지 '2 020 특별한 봄을 만들다!'를 부제로 '코 로나19로 변화된 나의 삶' 공모전을 개

참가대상은 조선대 사범대학 재학생, 조선대 전체 교직원과 광주·전남·제주 지역 초·중·고등학생이다. 공모 분야는 사진, 그림, 에세이, UCC이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단은 선착순으로 접수된 400명 (조선대 사범대 재학생 및 교직원 200 명, 초·중·고등학생 200명)에게 기프티 콘을 제공할 계획이며, 접수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 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선대 시민교육사업 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최권범기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